

나주시, 정부·광역 평가 4관왕... 재난 안전 역량 입증

재난관리, 자연 재난, 환경정비, 훈련 유공까지 '안전 으뜸 도시' 위상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재난과 안전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안전 으뜸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 재난관리 및 안전 분야 주요 평가에서 안전재난과가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우수기관, 화랑훈련 유공 등으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 전 주기와 민방위, 자연환경 정비 분야

까지 폭넓은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3개 부문(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하천 및 계곡 정비) 수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2025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추진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4관왕 달성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 강화,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 등 나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안전 행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윤명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재난 안전 분야 4개 부문 동시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2026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나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

‘하얀 겨울 오두막’ 새단장

전남 함평군 나비곤충생태관이 겨울을 맞아 포근한 ‘하얀 겨울 오두막’으로 새 단장을 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이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새로운 감성 공간 ‘하얀 겨울 오두막’을 선보인다.

나비곤충생태관은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 표본 354종 137점을 보유한 생태 교육 전시관으로, 전시관 중앙의 모뉴먼트링을 비롯해 나비 인터랙티브 체험, VR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함평군은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나비곤충생태관의 기존 전시공간에 겨울 테마 연출을 더해, 관람객들이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관을 새롭게 꾸몄다.

‘하얀 겨울 오두막’은 눈 덮인 숲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트리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겨울 테마 공간으로, 휴식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비곤충생태관의 특색을 살린 나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더해져 일반적인 겨울 연출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나비곤충생태관의 특색을 살린 나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일반적인 겨울 연출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금색·은색, 분홍빛, 푸른빛 나비 장식이 트리와 조화를 이루며 겨울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겨울빛축제 기간 나비곤충생태관을 비롯한 엑스포공원 내 주요 전시관을 겨울 테마 공간으로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보성군 개청 이래 역대 최대... 2026년도 본예산 7,290억 원 확정

전 주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회복·미래 성장 동시 강화

보성군이 군 재정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

보성군은 지난 16일 열린 제318회 보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7,29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6,666억 원보다 623억 원(9.35%) 증가한 규모로, 보성군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

보성군은 관행적·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생 직결 예산과 성장 투자 예

산을 동시에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확보 규모를 전년 대비 3.3% 늘린 2,919억 원으로 확대하며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13% 증가한 6,350억 원, 특별회계는 1.27% 감소한 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세입은 지방세 267억 원, 세외수입 202억 원, 지방교부세 2,7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 등을 반영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군민 생활 안정 및 돌봄 체계 강화, △농림·축산·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 기반 확대, △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5대 핵심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 편성됐다.

먼저, 군민 생활 안정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30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억 원, △부모급여 지원 16억, △아동수당 급여 15억 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31억 원, △낙지목장 조성 및 별교꼬막 리본 프로젝트 11억 원, △고품질 가루누차 살균시설 조성 10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6억 원 등을 편성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미래형 농수산업을 구축한다.

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분야는 전 주민 30만 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 116억 원을 포함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23억 원,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4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원,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액 2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780억 원 판매

시장에서 골목상권까지 지역 소비 촉진 전략 결실 맺어

으로 분석된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마트 등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70여 개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시 10% 할인 운영과 함께 설 명절 및 휴가철인 8월부터 연말까지 15%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친 결과, 주민과 관광객

의 높은 참여 속에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군은 ‘찾아가는 모바일 정보무늬(QR코드) 결제 서비스’로 가맹점 정보무늬(QR코드) 보급을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이용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으로 ‘감성 충전’하러 오세요”

1월 초까지 장성읍 ‘돌담길’, ‘오피먼트’서 그림·사진전

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1월 11일까지 열린다.

사진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있다. 장성호 아래 ‘오피먼트’(미라단지길 8)에선 장성군사진가협회의 정기 전시인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전이 관객 맞이 중이다. ‘키르큐펠스 바

다 풍경’, ‘우피요츠바투스키 교회’, ‘육사라 폭포’ 등 아이슬란드의 풍광을 감각적인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1월 4일까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한 지정기부 모금 시작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18일부터 고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보건소 내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운영해 지역 1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운영비로 사용된다. 해당 진료실은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기부 참여는 고흥사랑기부제 공공 플

랫폼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가능하며, 모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모금 개시와 함께 지정기부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나눔이 담양의 아이와 부모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